

무자격 이민자의 미국으로 들어오는 주요 동력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답변은 미국과 멕시코, 그리고 미국의 무자격 인구 주요 출처 국가들 간의 경제적 및 인구학적 보완성이다.

1970년대 이후, 미국은 광범위한 경제적 변화를 겪으며, 산업화된, 노동조합화된,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파란색 계급 노동력에서 저숙련도의, 주로 서비스 산업으로의 전환을 경험했다. 국제 무역의 압력과 노동조합 가입률의 감소로 인해, 미국의 저숙련도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평평하거나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동시에, 미국 내 출생 노동자의 교육 수준, 기대치 및 연령이 상승하는 상황과 대조를 이룬다. 예를 들어, 1979년에서 2013년 사이, 미국의 생산성은 65% 증가했지만, 생산 및 감독직이 아닌 노동자(민간 부문 노동력의 80%)의 시급 보상율은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저숙련도 및 저임금 노동자의 수요는 미국 내 노동자의 공급을 초월했다.

이러한 변화는 멕시코(및 기타 이주 국가)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높은 출생률로 인해 큰 노동력 과잉 상태를 경험한 시기에 발생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멕시코의 출생률은 모두 급증했지만, 1970년대까지 멕시코의 출생률은 여성이 평균 5~6명의 자녀를 낳는 수준이었다. 이는 미국의 2명의 출생률과 대조를 이룬다. (현재 멕시코의 출산율은 2.2명으로, 1960년의 7.3명에서 감소했으며, 미국의 1.8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는 최근 몇 년 동안 멕시코에서 미국으로의 이민 감소에 기여한 요인 중 하나이다.

5)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견실한 경제 성장 이후,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이르러 멕시코의 대규모 노동력은 화폐 평가절하와 취업 기회가 열악한 불안정한 노동 시장에 직면했다. 이는 북미 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인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많은 신규 노동 시장 참가자(16세 이상)는 해외에서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찾았다. 예를 들어, 한 분석에 따르면 1976년에서 1995년 사이 멕시코의 실질 임금이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lise Gould, "Why America's Workers Need Faster Wage Growth--And What We Can Do About It" (Washington, DC: Economic Policy Institute, 2014), www.epi.org/publication/why-americas-workers-need-faster-wage-growth/

Gordon Hanson and Craig McIntosh, "The Great Mexican Migration" (NBER Working Paper 13675,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 December 2007), www.nber.org/papers/w13675. Hanson and McIntosh는 멕시코 주별 노동력 공급(즉, 15년 전의 출생률)의 변동이 1980년대와 1990년대 멕시코 이민의 변동의 40%를 설명한다고 밝혔다.

Aaron Terrazas, Demetrios G. Papademetriou 및 Marc R. Rosenblum, "Evolving Demographic and Human-Capital Trends in Mexico and Central America and Their Implications for Regional Migration" (Washington, DC: Migration Policy Institute, 2011), www.migrationpolicy.org/research/RMSG-demographic-human-capital-trends-mexico-central-america; 세계은행, "Fertility rate, total (births per woman)," 2015년 3월 23일에 확인,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P.DYN.TFRT.IN>

[[0,0,1000,1000]]